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언어문화 중심의 대민 홍보

글 **홍중선**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위원장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2005년에 시작했으니 14년이 지났다. 그동안 남과 북의 사전 편찬원들은 우리 겨레에게 보람을 줄 훌륭한 사전을 만들기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정치적 요인으로 남북 교류가 종종 막혔고 우리의 열의와 의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기간이 오히려 더 많았다. 그런데도 초창기 서로 긴장하며 대화를 주고받던 시기를 지나 여러 해를 만나면서 상대방의 진정성과 사전 편찬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발전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편찬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을 알리기 위한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을 서울시 시민청에 설치한다. 그럼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드릴 것인가? 바로 그것이다. 남과 북은 70여 년 동안 단절된 채 서로를 불신하고 때로는 적대시하는 세월을 보냈다. 남북통일은 그러한 불신과 적대를 신뢰와 애정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편찬사업회의 발걸음은 그것이 가능함을 증명했다. 이것이야말로 편찬사업회가 남과 북의 국민에게 웅변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물이다. 관람객들이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에서 남과 북이 어떻게 상호 신뢰와 애정을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느낀다면, 그리하여 그와 같은 일을 각자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하나 실천해간다면 남북이 통일로 가는 노정에 크나큰 기반과 동력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편찬사업회는 관람객들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준비하고 전시하며 설명해야 한다. 초창기 남북 교류가 어려웠던 사정들을 보이고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사업에 열성을 다하는 모습, 민족적인 커다란 명분 아래 남과 북이 화합하여 어렵고 복잡한 주변 조건들을 이겨내며 사업을 진척시키는 모습 등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 학술행사나 공동회의 사진도 제시하겠지만 실제로 집필한 원고들도 몇 가지 유형별로 전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다지’라는 올림말의 뜻풀이에서 남과 북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뜻풀이 원고가 남과 북을 오가며 고치고 기워지며 또 공동회의에서 양측의 편찬원들이 직접 마주 앉아 논의하여 드디어 양측이 만족하며 수공하는 뜻풀이를 이뤄내는 이 길고 힘든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남과 북이 다른 ‘1모음 역행동화’와 ‘순행동화’의 표기 문제를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를 이룬 결과, ‘두음법칙’, ‘사이시옷’ 등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내용 등도 그대로 게시하여 남북 합의의 훌륭한 성과와 더불어 어려운 사정을 실감 나게 홍보할 수도 있다.

남북이 화합해야 할 필요성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남북이 화합해야 할 필요성과 방법을 실제 사례로 만나고 느끼면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이 우리 민족의 남북통일과 우리말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게 되리라 믿는다. 그것은 1차 자료뿐만 아니라 2차 자료나 안내원의 설명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국민 가운데 일부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에 대하여 그 효용성이나 성공 가능성에 선뜻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에도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의 안내원들이 홍보 내용과 관련하여 미리 충분히 공부해야 한다.

대체로 홍보관이나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느낌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방문 경험으로 여긴다. 겨레말큰사전 홍보관도 방문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모두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전시된 자료들을 죽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자료가 다양하고 풍부해야 하는데, 우리 편찬사업회는 업무의 특성상 이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사전 편찬이라는 전문 영역에 대해 일반 시민에게 전문성의 중요함을 인지하면서 쉽고 재미있는 내용이 되도록 개발하고,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다가설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편찬사업회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북의 언어 자료와 해외 우리 민족의 우리말 자료 등을 많이 다루고 있다. 따라서 북쪽 언중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말을 정확하게 해설하고 방문자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물음에 제대로 답을 해줄 수가 있다. 가령 ‘이북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라고 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이 말은 말다듬기 초기에 잠시 시행하려 하였으나 언중들이 따라주지 않아 이젠 거의 사용하지 않고 북에서도 ‘아이스크림’이라 하며, 오히려 딱딱한 아이스크림(아이스바)은 상표명인 ‘에스키모’로 통용되는 일이 많다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북의 언어 외에 해외의 우리 민족들이 사용하는 우리말의 실태도 실제 어휘나 표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말들에는 일반인이 호기심을 갖게 하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우리말 전체가 갖는 가치와 그러한 말들을 모아 사전을 만드는 우리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 좋을 것이다.


근래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전시관은 물론 홍보관들이, 방문자들에게 전시 또는 홍보하는 내용 일부를 직접 체험을 통해 그 분야에 대한 인식을 깊고 자기화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에서도 방문자들이 직접 사전 편찬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가령 ‘꽃’이나 ‘손, 평화, 가다’와 같이 쉬운 단어를 어떻게 뜻풀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직접 뜻풀이를 하자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자신들이 어렵게 해본 풀이말과 사전에서의 풀이말을 비교해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사전 편찬이 무척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단체로 견학을 올 수 있다. 이후 이들이 사전에 관심을 두고 일상에서 《겨레말

큰사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우리말 사전이 발전해온 과정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어휘의 뜻을 비교하며, 특히 남과 북에서 나온 사전들에 나타나는 특징 및 장단점 등도 구체적인 예를 들며 제시하는 코너도 마련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사전이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 그렇게 된다면 방문자들이 우리말 사전의 역사를 알게 되고 남북 사전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일상생활에 사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전

우리나라에는 사설 출판사에서 설립한 사전박물관이 한 곳 있을 뿐이다. 사전이 일반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은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사전의 현 상황과 중요성을 알리는 것 외에도 일반적인 사전박물관이나 전시관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은 이 사전 편찬의 취지에 걸맞게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역사적 사명의 한 축으로 언어문화 중심의 대민 홍보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특히 남북통일에서 양측 언어의 통합 통일 중요성과, 이를 위해 편찬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의 의의가 가슴과 머리에 깊이 이해될 수 있도록 내용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가 방문자들에게 너무 무겁거나 부담스럽지 않도록 쉽고 흥미 있게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편찬사업회는 겨레말큰사전 홍보관 방문자들이 의미와 재미를 한꺼번에 경험하여 다시 방문하고 싶고 친지들에게 방문을 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의 홍보 내용이 비교적 전문적이어서 이러한 성과를 올리기 쉽지는 않다. 하지만 겨레말큰사전 홍보관은 일상생활에서 늘 맞닥뜨리는 언어 문제를 다루고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홍종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박사,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겨레말큰사전 남측 편찬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